

# 장서관리에 있어서 '선택'기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lection' in Collection Management

권 은 경 (Eun-Kyung Kwon)\*\*

〈 목 차 〉

- I. 머리말
- II. 선택의 본질에 대한 이해
- III. 장서관리와 선택
- IV. 선택에 대한 접근방법
  - 1. 미시적 접근방법
  - 2. 거시적 접근방법
  - 3. 선택과정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
- V. 선택기능의 패러다임 변화
  - 1. 도서관업무의 변화에 대한 이해
  - 2. 선택기능의 변화와 융합
  - 3. 새로운 선택기능의 정립
- VI. 결 론

### 초 록

본 연구는 전자환경의 장서관리 상황에서 도서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료선택기능이 변화해야 할 방향을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선택의 목적은 정보자료를 평가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대해 내용가치가 높은 자료를 소장함으로써 접근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쉬워진 전자환경에서 선택은 자료에 대한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선택 패러다임으로 노동집약적이고 소모적 업무인 각 도서관의 선택기능은 평가정보의 분산입력과 공동이용이라는 국면전환으로 도서관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다.

### Abstract

This study purposes to identify how the 'selection' of library materials should be changed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to improve library services fundamentally. The study scrutinized the essence of sele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ection and collection management, and the results of various studies to define the selection. The study implies : 1) the selection must be changed to the function providing users with assessment information of library materials, which helps the users access to entire scholarly information. 2) the assessment information could be input from different libraries and used by all users connected to the library network.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I. 머리말

도서관 자동화에 관하여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었던 비난과 반성은 자동화가 기존의 업무형태를 그대로 기계화하려고 하였다라는 점이다. 업무를 이미 오랫동안 익숙해진 절차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결과로만 파악하고 그것을 전산화하는데 치중하였을 뿐, 업무의 궁극적인 목표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술의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전자정보매체의 이용에 있어서도 도서관은 CD-ROM의 구입,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전자잡지의 구독 등 기존에 이용하던 자료의 매체를 바꾸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이것이 도서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과 어떻게 관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뉴미디어의 총아로 불리는 마셜 맥루한이 던진 “미디어는 멧세지다”(맥루한, 1997), “미디어는 맛사지다”(맥루한, 1988)라는 화두는 새로운 정보미디어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에도 우리의 미래상에 대한 더욱 진지한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변화는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 또는 용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매체는 인간을 철저하게 주무르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도서관이 사용하는 도구 및 수단이 변화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의 변화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업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 변화의 방향은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각 기능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다시 도서관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렴될 것이다.

전통적 도서관에서 자료의 선택은 수집을 전제로 한 것으로, 출판사에 주문하기 위하여 사서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 또는 출판사나 대행사와 어프루벌 플랜, 블랑킷 오더를 계약하여 간접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선택기능의 핵심은 각각의 자료에 대한 가치와 유용성을 평가하여 수집할 자료를 선택적으로 결정하는데 있다. 그러나 전자정보환경에서 자료의 수집은 각 자료의 평가에 의거한 선별적인 수집이 아니라 전자잡지의 이용계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출판사나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대량의 자료에 대한 이용권을 일괄계약하는 방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자료의 선택은 개별자료에 대한 평가보다는 얼마나 많은 자료를 어떤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하는 장서의 관리적인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결국 자료의 선택은 최종이용자에게 완전히 유보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변화의 추세하에서 도서관의 자료선택 기능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선택 결정을 도와 줄 수 있는 측면에서 크게 보완되고 바뀌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정보환경의 장서관리에서 도서관의 자료선택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장기적인 변화의 예측은 본 연구자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논문이나 실무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가까운 장래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중·단기적인 변화의 방향을 짚어 보았다.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항상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먼저 선택기능의 본질을 장서와 장서관리기능과의 관계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선택과정과 선택결정의 전모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각각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주요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전자정보환경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선택기능의 패러다임을 모색하였다.

## II. 선택의 본질에 대한 이해

도서관 업무중 자료선택은 장서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해야하는 당위성은 도서관의 역할과 장서의 의의로부터 연역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도서관의 역할은 이용자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원과 연결시킴으로써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자료의 집합체가 장서이며, 이러한 장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선택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나 장서의 선택에 이용자의 정보요구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Atkinson은 도서관의 기능을 규명하고 그로부터 장서의 기능을 연역적으로 유도하였다.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연구결과의 주지기능, 1차정보 수집기능,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적 기능,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기능, 그리고 정보의 접근을 보장하는 서지적 기능 등의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장서는 이상의 다섯 가지 도서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첫째 주지정보원으로서 학술잡지의 논문과 단행본, 둘째 모든 1차정보원을 포함하는 도큐멘테이션 정보원, 셋째 개론류의 교육적 정보원, 넷째 수요는 없지만 역사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원, 그리고 다섯째로 다른 모든 정보원에 접근을 제공하는 서지적 정보원을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Atkinson, 1989 : 508, 515).

Buckland는 장서의 역할을 현재와 미래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존적 역할,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배포적 역할, 현존 자료를 식별하게 하는 서지적 역할, 그리고 도서관에 지위와 명성을 부여해 주는 상징적 역할의 네 가지로 정의하였다(Buckland, 1992 : 55-56).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4호)

Atkinson과 Buckland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장서의 기능을 조망하고 있으나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정보를 보존하는 기본적 사명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Buckland가 기술한 서지적 역할은 다소 특이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특정 장서자체가 그대로 하나의 서지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로, 이 점에서는 Miksa와 Dorty의 장서에 대한 이해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Miksa와 Dorty는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장서로 대변된다는 인식에서, 도서관을 '한 장소에 수집되어 있는 장서'로 정의하고 장서를 고립된 자료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전체로서 잘 짜여져 있는 하나의 논리적 또는 지적 구조체로 보았다(Miksa and Dorty, 1994 : 1). 인간이 생산한 지식의 총체를 지적 우주로 볼 때, 기록된 지식의 집합체는 서지적 우주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수집한 장서는 서지적 우주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는 자관의 장서 그리고 타 도서관의 장서로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점점 더 넓은 서지적 우주를 경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적 우주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특정 도서관의 장서란 그 자체로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넓은 지식의 세계로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지적 구조체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장서에 대한 이해는 자료의 수집에서 선택기능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즉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보존하는 과정을 통해 자관의 제한된 서지세계로부터 더 넓은 서지적 우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 자료이며 무엇을 수집하고 소장하며 어떻게 제공하고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제나 선택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현실적으로 유한한 자원의 제약을 받는 도서관은 생산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어떤 자료는 선택하고 어떤 자료는 선택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선택과 제외라는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수적이며 이 경계를 설정하고 행사하는 것이 바로 선택의 본질인 것이다(Atkinson, 1996 : 243). 그러므로 도서관의 현재의 장서란 끊임없이 반복된 선택결정이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보서비스를 통해서 정보원에 부가될 수 있는 가치로는 이용의 용이성, 논리적 접근성, 질적 보장, 특정 정보요구에 대한 적응성, 시간의 절약, 비용의 절약 등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Taylor, 1986 : 55). 이 중 대부분은 이용할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 시간의 절약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즉 도서관서비스가 제공하는 부가가치는 포괄적으로 접근가치를 의미하며, 접근가치는 물리적인 접근의 용이성이든 선별된 자료에 대한 논리적 접근이든 결과적으로는 접근하기 위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접근시간을 단축시켜 접근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은 자료를 물리적으로 소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서비스는 물리적 접근

가치를 향상시키는 한편, 접근의 대상인 정보 역시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내용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서비스의 목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내용가치가 높은 자료에 대해 경계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접근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Atkinson, 1996 : 242).

정보기술의 발전은 자료를 도서관내에 소장하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접근가치를 크게 향상시켰다. 전자환경에서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가치가 향상된다면 정보서비스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이용자 입장에서 내용가치가 큰 자료를 선택하는 일이다. 물리적 접근가치는 매우 객관적인 반면에 내용가치는 주관적이다. 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이용자에 따라서 내용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그의 관점이 달라지거나 지식이 증가하면 자료의 내용가치도 상대적으로 변하므로 선택은 더욱 복잡해진다.

소장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접근가치를 향상시킨다는 도식이 성립되지 않는 전자환경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내용가치가 더 큰 정보자료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선택기능이 정보서비스의 핵심이 될 것이다.

### III. 장서관리와 선택

장서관리와 선택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용어사용의 변화, 그리고 기능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용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용어는 그 의미가 분명히 구별되는 면도 있지만 상이한 개념이라기 보다 동일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도서관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개념에서 파생된 또 다른 용어로는 장서구성 장서개발 등이 있다. 용어의 분화 발전은 자료형태와 장서의 개념적 지향점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장서구성은 각 자료에 대한 개별적 선택의 중요성을 탈피하여 자료를 주제 형태별로 구분하여 장서 전체로서 균형을 갖춘 하나의 구조물로 인식하려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장서개발은 끊임없이 생산되는 자료 즉 비소장자료 중에서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장서로 개발하는 과정에 비중을 둔 용어이다. Evans는 장서개발을 이용자의 요구와 지역사회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도서관장서의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고 만일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Evans, 1995 : 17).

그러나 도서관은 정보이용의 관점에서 자료를 더 이상 자관의 소장자료 즉 장서와 비소장자료로 이분화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자동화 이후 목록이용의 확대, 자원

##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4호)

공유, 협동장서개발, OPAC 등은 도서관의 장서를 서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고, 전자정보매체의 급속한 확대는 소장하는 장서가 아니라 접근하는 장서로 장서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다.

새로운 정보매체의 등장은 정보의 이용방법과 이용범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보매체의 변환과 보존, 협동, 관리의 문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도서관 자료의 관리적 측면을 강화시킴으로써 장서관리라는 용어를 등장시켰다. 장서개발과 장서관리의 차이점은 장서개발은 경제적 자원을 정보자원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일방적인 활동인데 비해 장서관리는 경제적 자원을 정보자원으로 변환시킬 뿐 아니라 장서개발과는 달리 정보자원 또는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킨다든가 제거함으로써 경제자원을 절약하거나 증가시키는 쌍방향적인 활동이다(Atkinson, 1998 : 12).

한편 Edelman은 장서개발, 선택, 수서 등 일련의 용어들을 계층관계로 파악하고 상호호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제 1수준은 장서개발로 계획기능을 의미한다. 장서개발정책은 장서와 관련된 도서관의 장단기 목표를 기술한다. 장서를 이용자의 수요, 필요성, 기대, 정보세계, 회계계획, 장서의 역사와 같은 환경적 요소와 관련하여 고려하며, 장서개발계획으로부터 예산이 배정된다. 제 2수준은 선택으로 장서개발의 직접적인 기능이며 장서개발계획,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이다. 도서관자료를 식별하고 선택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론은 장서개발계획과는 별개로 인식되어야 한다. 제 3수준은 수서로 선택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실제로 도서관에 자료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Edelman, 1979 : 34).

이 관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면 계획기능인 장서개발은 커뮤니티의 장서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업무이다. 이용자의 요구, 도서관의 기존장서, 타 도서관장서와의 관계, 학문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수집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분배하게 된다.

선택기능은 장서개발정책에서 제시하는 수집의 범위 내에서 관련자료를 식별하고 선택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각종 서지도구를 통해 식별된 자료들은 선택 또는 제외라는 의사결정을 통해 도서관의 장서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선택과정은 일반적으로 자료의 식별과 선택결정이라는 두 단계로 구분되어왔으나, Atkinson은 식별, 순위화, 선택결정이라는 세 단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단계는 비소장자료 중에서 관련자료를 식별하고 정의하는 단계, 둘째 단계는 식별한 자료를 그 가치에 따라 순위화하는 단계, 셋째 단계는 실제로 수집할 자료를 선택하는 결정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선택의 기능을 세 번째 단계인 의사결정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선택의 본질은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식별된 자료를 가치에 따라 순위화하는 작업에 있다(Atkinson, 1994 : 98). 도서관업무의 실제에 있어서 결정단계는 비교적 단순한 기

능으로 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특히 예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순위화작업이란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가치가 높은 자료에서부터 낮은 자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체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의 절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자료의 가치는 정보이용자의 관점, 업무의 진행정도, 이용자의 지식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들이 변화하면 가치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순위화 작업은 노동집약적이면서 매우 다이나믹한 특성을 갖는다.

수서는 선택이 결정된 자료를 실제로 도서관에서 받아들이는 업무를 말한다. 수서업무는 선택자료에 대한 정확한 서지사항의 확인, 복본조사, 주문, 검수, 장비 등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포함한다.

장서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상호 관련된 세 가지 기능은 실제 업무에서는 이론에서만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특히 전자매체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무엇을 소장하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선택기능 외에도 정보매체의 선택, 그 중에서도 정보의 주제와 관련한 매체의 선택문제, 정보원 이용의 범위와 이용방법의 선택, 자원 공유와 협동의 문제 등 본질적으로는 선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택기능은 계획된 장서관리정책을 실행하는 하부적 기능이라기보다 효과적인 장서관리의 핵심기능이며, 선택결정이 장서관리의 계획에 반영되어 계획자체가 조정되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서관리와 선택기능은 독립된 부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서관리는 정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의 모든 업무부서에서 수렴된 정보가 결집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이 분산되어 있으며, 선택기능도 크게는 사서와 이용자사이에 그리고 사서의 책임은 다시 수서 담당자, 참고사서 등에 분산되어 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선택기능은 정보의 최종이용자인 교수진에게 위임되어 있는 비율이 크다. 그러나 현재 당면한 바와 같이 정보환경이 더욱 복잡한 양상 -가장 주요한 요소로는 예산의 감소, 매체의 다양화, 주제분야 또는 학문분야에 따라 연구방법과 정보매체가 상이한 점 등- 으로 발전하는 추세에서는 주제간 정보수집 및 이용의 불균형, 예산배정의 불균형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으로 장서관리와 선택 모두에 새로운 기능적 조율이 필수적이다.

## IV. 선택에 대한 접근방법

도서관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선택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객관적인 자료선택의 필요성은 선택이라는 것이 선택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이용자를 위한 대리행위이며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과간의 균형적인 장서수집, 실제적으로는 합리적인 예산배정을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선택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자료자체의 가치와 유용성을 합리적으로 객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는 장서관리라는 보다 거시적인 문맥에서 접근하는 연구로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작용하는 정보환경 가운데서 자료의 상대적인 유용성에 근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셋째는 선택행위에 개입된 요소와 선택과정을 분석적으로 접근한 연구이다.

### 1. 미시적 접근방법

미시적인 접근방법은 선택의 기준을 자료의 가치와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로부터 찾는 방법이다. McColvin(1925), Hains(1950)에서 Katz(1980), Gardner(1981)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이 자료선택의 기준을 분석, 제시하였다. 그 간의 연구에서 거론된 기준을 망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Gardner의 예를 보면 권위, 정확성, 공정성, 데이터의 최신성, 적절한 범위, 수록범위의 깊이, 적절성, 적합성, 흥미, 조직, 문체, 심미적 가치, 기술적 측면(삽화나 소리의 충실성), 물리적 특성, 자료의 기타 특징(서지, 부록 등), 도서관에서의 잠재적 가치,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Gardner, 1981 : 184-88).

이 항목들은 자료 자체의 절대적인 가치, 이용자의 요구, 이용자에 따른 자료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은 기준을 독립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이 기준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하며 언제 적용하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Rutledge and Swindler, 1987 : 124).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을 보다 단순화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모델이 연구되었다.

Depew(1975)는 다양한 선택 결정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선택요인으로는 자료에 대한 정보원, 소장여부, 신청자의 신분과 특성, 지정도서여부, 주제, 출판물의 형태와 질, 서지, 지적 수준, 예산 등 16개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최고 6등급의 가중치 부여방법을 고안하였다. Depew의 모델에서 특기할 사항은 자료신청자의 신분이 선택결정에 크게 작



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6개의 요인중 신청자의 신분과 관련된 항목이 네 개로 신청자의 신분이 교수인가 학생인가, 신청자가 대학이나 도서관의 목표설정예 영향력이 있는가, 신청자의 자료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신청자는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사람인가 등에 따라 각각 차등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모델은 가중치의 계산방법 뿐 아니라 의 사결정의 플로차트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수준,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할 뿐 아니라 자료신청자의 면모가 선택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 정치논리가 작용한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Losee(1987)는 출판된 서평, 저자와 출판사의 명성, 교수의 추천, 최신성, 책의 특징 등이 선택을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이 요소들을 다양한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값을 측정하여 선택의 척도로 삼는 모델을 연구하였다. 미술사에 관한 자료를 선택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자료의 크기, 그 자료에 관한 특정 서평에서 '미술'이란 용어가 출현한 빈도, 그리고 교수가 그 자료를 추천했는지의 여부를 각각 정상분포, 뾰외송분포, 이항분포로 값을 얻어 그 합계로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초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정상분포의 경우에는 선택된 자료의 평균 크기와 선택되지 않은 자료의 크기, 뾰외송분포의 경우에는 이전에 선택된 자료의 서평에 '미술'이란 용어가 출현한 평균빈도와 선택되지 않은 자료의 서평에 출현한 빈도, 그리고 이항분포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거 교수가 추천하여 수집된 자료의 비율과 교수가 추천하였으나 수집되지 않은 자료의 비율에 대한 소급정보가 필요하다. Losee는 자료의 크기, 서평에 출현한 특정 용어의 빈도수, 교수의 추천을 선택결정의 변수로 제시하였는데 변수의 선정이 매우 임의적이어서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택된 자료와 선택되지 않은 자료에 관한 소급 데이터가 기계가독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급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다면 그것을 분석하여 자료의 주제나 유형에 따라 어떤 요소가 선택기준으로 변별력이 있는가 찾아낼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논문에 제시된 공식의 유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Rutledge와 Swindler(1987)는 선택기준을 주제, 지적인 내용, 잠재적 이용, 장서와의 관계, 서지적 고려사항(출판사, 형태 등), 언어의 6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반영하여 주제에서 언어의 순서로 각각 30, 25, 20, 12, 8, 5점 등 합계 100점을 부여하였다. 각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지적 내용을 예로 들면, 해당분야의 주요 저서, 주요 저자, 주요 비평적 연구, 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공헌을 하는 자료이면 1순위, 일반적 내용, 제한적인 저작, 제한적인 지적 전망, 대중적인 취급방식이면 2순위, 편집되지 않은 자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저작, 선동적인 자료는 3순위로 1순위에 대해서는 25에서 0까지, 2순위에 대해서는 16에서 0까지, 3순위에 대해서는 8에

서 0까지의 가중치를 배정하였다.

Losee, Depew의 모델이 단순한 선택기준의 나열에서 기준의 세부적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일보하였다면 Rutledge와 Swindler는 선택기준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한 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Monroe(1997)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관관계가 배제된 독립기준의 제시와 가중치부여 방법과는 달리 기준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선택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료선택의 기준을 자료의 유형, 질, 수준, 형태, 가격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유형은 다시 참고자료/비참고자료, 연속간행물/비연속간행물, 조사/교과서/전문분야의 단행본, 원본/평가자료(비평적 판)로, 질은 권위, 정확성, 최신성, 조직, 물리적 특성으로, 수준은 대중서, 전문서, 연구서로, 형태는 종이, 마이크로형태, CD-ROM, 테이프, 비디오, 온라인으로, 가격은 자료의 질 및 수요와의 관계로 나누어 각 범주의 세부기준들이 상호작용하는 지점에서 선택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Monroe가 제시한 선택기준의 특징은 주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제는 바로 이용자의 요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으로 선택과정에서 사서가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Monroe의 기준은 주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하는 다른 연구자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주제를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제시되는 당연한 전제로서 선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대학도서관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미시적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수학적인 방법, 공식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선택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제시된 모델이 아무리 정교하다 할 지라도 비현실적으로 단순화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기능에 지나지 않으며, 최종결정의 책임은 여전히 사서에게 유보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Losee, 1987 : 270). 다른 하나는 모델이 단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점이다. 도서관에서 선택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수 없이 반복되는 작업이다. 각 자료의 선택을 결정할 때마다 모델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모델들은 자료선택과정에 얼마나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선택결정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효과는 갖지만 실용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거시적 접근방법

선택에 대한 또 다른 접근방법은 보다 포괄적인 문맥, 즉 장서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거시적 접근방법의 근거는 자료의 선택이 자료자체에 대한 평가와 이용자의 요구라는

양대 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자료의 생산, 유통, 이용의 흐름과 환경적인 문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에 있다. 학문의 성격, 출판의 동향, 정보매체,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 등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는 이런 변화양상이 장서관리에만 아니라 선택에도 직접 반영되어야 하며,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장서관리의 핵심기능이 바로 선택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결정의 요인으로 직접 작용할 수밖에 없다.

Hazen(1991)은 선택은 장서관리와 마찬가지로 도서관활동을 규정하는 보다 광범한 상황 속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도서관이 처한 기관의 환경, 이용자 구성원,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공학, 학문의 성격 등 네 가지 문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자료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도서관의 기관적 환경에는 넓게는 저작권법 좁게는 해당기관의 회계시스템까지 포함된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장서수집의 영역과 수집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용자의 현재 및 미래의 요구는 한정된 자원의 제약 하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그러나 학문과 대학의 유동성은 요구의 예측을 갈수록 어렵게 하고 있다. 기술과 공학의 발전은 표준화된 포맷과 절차로 정보교환과 공동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문분야 역시 각 분야마다 독특한 지식구조와 지식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갖고 있으므로 자료의 선택은 학문의 성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Hazen은 이상의 네 가지 문맥에 대하여 비교적 독립된 양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즉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자매체를 탄생시켰고 이것은 학술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켰으며, 이 변화는 다시 학문의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의해 이용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도미노식의 연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시너지효과가 바로 장서개발을 장서관리로 몰고 가는 핵심적인 추진요소인 것이다. 기술에 의한 새로운 기록정보원의 생산은 연구범위와 방법을 변화시키고 이것은 학문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도서관장서가 이용자의 요구와 함께 학문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문을 자극하는 것이라면 Hazen의 네 가지 문맥은 자료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Atkinson(1991)은 장서의 수집, 제적, 보존과 관리 등의 활동이 결국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개개의 자료 또는 자료군을 선택하는 일이므로 장서개발의 모든 측면은 선택으로 귀결된다고 전제하고 정보원들의 결합, 도서관의 주요관점, 지역성, 시의성을 선택의 핵심요소로 보았다. 장서개발 담당자는 도서관의 목적, 장서의 목적에 대한 이해에 따라 이중 어느 하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도서관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는 장서개발 담당자는 이용자 구성원의 특성과 그들의 정보요구를 가장 중요한 선택요소로 볼 것이다. 주제영역과 출판현황을 장서의 질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관점을, 그리고 장서를 하나의 구조나 시스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정보원들의 결합을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Atkinson은 온라인환경에서 장서개발을

##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4호)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았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간이며, 장서의 개발과 보존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도 시간이다.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소요해야 하는 시간 내에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접근레벨의 척도를 개발해야 하며 정보요구의 완급에 따라 자관의 장서나 데이터베이스로 소유하거나 타 도서관과 공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격 데이터베이스, 또는 더욱 먼 도서관이나 접근이 까다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식의 차등화된 접근방법의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Hazen과 Atkinson은 각각 다른 용어로 온라인환경의 선택과 장서관리에 대한 접근방법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것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 또는 표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도서관의 장서는 본질적으로 지식의 구조 또는 학문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학문의 분야별 특성에 의해 연구자의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이 다르고 주로 이용되는 자료의 종류, 형태, 이용자의 이용행태가 다른데 이는 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정보가치의 유효기간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정보매체와 이용의 다양성은 궁극적으로 학문의 성격과 연구방법에 근거하므로 앞으로 정보자료의 선택은 학문분야마다 상이한 이런 특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 3. 선택과정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

자료선택과정에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료, 이용자, 외부환경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선택과정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선택자 개인이다. 선택자가 갖고 있는 상황적 지식이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과정을 Atkinson과 Schwartz는 현상학적, 인식론적인 분석으로 접근하였다.

Atkinson(1984)은 모든 텍스트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아니든지 항상 그 이전에 출판된 텍스트를 참고로 하고 있으며, 독자 역시 이전에 경험한 다수의 텍스트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복합적인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선택과정을 분석하였다. 새로이 접하게 된 자료에 대한 개인의 이해나 평가는 이전에 형성된 개인적인 텍스트 경험을 참고하여 이루어진다. 특정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 역시 하나의 텍스트로 그에 대한 이해는 이전에 접했던 다른 텍스트에 대한 참고와 비교에 의존하게 된다. 자료선택자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선택할 때 다른 텍스트에 대한 조회와 비교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

Atkinson은 이러한 텍스트 이해를 전제로 선택은 자료의 서지정보 자체가 갖는 결합적 문맥, 서지 서평 등 각종 선택도구가 제공하는 보완적 문맥, 그리고 장서 이용자 주제에 대한 사서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의미하는 의지의 문맥 등 세 가지 문맥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결합적 문맥이란 특정자료의 서지사항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합적 관계의 중요성은 서지사항의 기본요소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 각 요소가 상호결합하여 형성되는 의미가 선택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선택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서지사항은 다양한 서지정보원으로부터 추출된다. 서지정보원은 선택대상자료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서지, 해제, 서평 등은 분류나 주제명표목과 같은 장치를 통해 자료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직접적 보완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선택하고자 하는 자료의 서지정보가 어떤 정보원에서 추출되었는가 하는 상황적 정보는 간접적인 보완장치이지만 선택결정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접적 보완문맥의 예로는 특정 서지정보를 핵심적인 선정도서목록이라든가 핵심잡지의 인용연구, 주제별 핵심잡지의 서평 등에서 추출하였을 때 선택자가 자료의 가치에 대하여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자료를 신청하는 이용자 역시 간접적 보완문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의 결합적 문맥과 보완적 문맥보다 더욱 복잡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택자에게 속한 의지의 문맥으로 기존장서, 이용자의 요구, 주제 및 주제분야의 출판상황 등에 대한 선택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의해 구축된다. 이들은 밀접하게 상호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갈등관계에 있는데 도서관의 목적, 주제의 특성, 도서관내의 특정주제의 위상, 선택자 자신의 편견과 취향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Atkinson이 분석한 이상의 세 가지 문맥을 종합해보면 선택과정이란 선택대상이 되는 특정자료의 서지사항을 구성하는 요소, 즉 저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비용 등의 기본요소(결합적 문맥)를 중심으로 선택 보조도구로부터 추출한 정보(보완적 문맥)와 선택자가 축적해온 장서와 이용자와 주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도서관과 장서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의지의 문맥)이 서로 대비되고 검토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결정은 자료와 이용자라고 하는 객관적 요소에 의해서 보다 이들에 대한 사서의 개인적인 지식과 이해, 그리고 판단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료에 대하여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하더라도 최후의 결정을 지배하는 것은 선택자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점에서 선택은 보편적 법칙이나 공식을 거부하는 기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택과정에 대한 Atkinson의 세밀한 분석을 이론적으로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선택과정에서 매번 이렇게 다양한 요소의 복잡한 작용을 하나 하나 인식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Schwartz의 연구는 또 다

1) Atkinson은 결합적 문맥의 구체적인 예로 '유태인 상업사'에 관한 선택의 경우를 들었다. 이 주제의 저작으로 출판사항이 'Zurich, 1982'인 경우와 'Berlin, 1942'인 경우와는 전혀 다른 평가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고, 자료의 분량이 7쪽인 경우와 700쪽인 경우에도 전혀 다르게 작용할 것이다(Atkinson, 1984 : 111).

른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러한 의문과 선택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Schwartz(1989)는 어떤 선택의 경우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 모델이나 공식을 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료선택의 불확실성과 애매한 속성을 규명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선택과정을 분석하였다. Schwartz는 자료선택과정에 내재한 애매한 속성을 네 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 목적이 다양하다. 자료선택은 방법과 목적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애매하며, 측정할 수 있는 목표나 성공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러므로 선택목표와 선택기준을 포괄적인 모델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현실성이 없다. 둘째 우선순위가 불확실하다. 이것은 출판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료의 지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셋째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으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서평정보는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소급자료에 대한 평가는 이용통계 등으로 얻을 수 있으나 최신자료를 선택할 경우 어떤 피드백도 얻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목적과 방법의 총체적인 불확실성과 애매함 때문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고전적 합리성'이나 '규범적 분석방법'으로는 재현성이 없는 자료선택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료선택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암묵적 지식', 그리고 '상징적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모델에 있어서 제한적 합리성이란 인간의 인지적 능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의사결정문제를 인지적 한계 내에서 조작할 수 있는 크기로 단순화시키고 난 다음 단순화된 과제 수행에 한하여서만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의사결정자의 역할은 가능한 최대의 보상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의 제약 하에서 최상은 아니지만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대안을 찾는 데 있다(이종구, 1995: 3). 암묵적 지식이란 인간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직관적으로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시적인 접근방법에서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로 쪼개어 평가하려고 하지만 이런 시도는 전체로서의 지식과 문헌의 진수를 잃게 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밀착된 전체로서 하나의 저작을 평가한다는 관점에서는 실무자의 직관, 즉 암묵적인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선택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피드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과정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여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한 상징적인 만족이 노동집약적이면서 결과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선택과정을 유지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자료선택이라는 행위를 그 기능의 본질, 과정, 그리고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각각의 연구는 선택의 다양한 측면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선택의 전모를 조망할 수 있게 한다. 연

구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택은 자료와 이용자, 도서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변수, 그리고 선택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상호간에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교감하며 이루어지는 행위로 결론지을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노동집약적인 활동이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복수의 도서관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됨으로써 매우 소모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목록의 발전에서 그 아날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목록은 1901년에 이미 LC에서 중앙집중적으로 편목하고 카드목록을 생산하여 각 도서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소모적인 편목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문제는 기계가독목록의 등장으로 해결되었으며, 현재는 분산입력과 공동이용이라는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선택기능에 있어서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 V. 선택기능의 패러다임 변화

### 1. 도서관업무의 변화에 대한 이해

도서관의 업무는 오랫동안 열람 대출 참고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봉사와 수서 정리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봉사 또는 기술봉사의 두 영역으로 크게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도서관이 자동화되면서 이 구분은 점차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목록의 자동화와 목록 이용행태의 변화에 있다. 외부에서 작성한 목록정보의 활용으로 편목업무에 대한 부담이 적어짐과 동시에 OPAC의 등장은 이용자에게 목록이용을 지원해야 하는 직접봉사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노옥순은 정리기능의 변화요인으로 첫째 자관의 OPAC이용, 둘째 OCLC를 비롯한 서지유틸리티와 LC MARC등의 목록네트워크 활용, 셋째 도서관의 수서업무 파일에서부터 목록정보, 상용색인, 타 도서관의 OPAC, 오프사이트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결하는 통합시스템의 가능성, 그리고 넷째 아웃소싱을 들었다(노옥순, 1995 : 66-70).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목록이용을 돕는 것은 열람 및 참고사서의 책임으로 여겨졌었지만 OPAC의 이용자교육에 목록사서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통합시스템의 추세는 그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직접봉사의 영역이었던 목록이용의 지원에 목록사서와 열람, 참고사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전체적인 도서관서비스 향상과 업무간 협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목록사서는 서지정보의 조직과 검색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색인방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목록이 어떻게 인식되고 이용되는지 이해함으로써 이용자가 효과적인 탐색전략을 고안하는데

##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4호)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열람사서나 참고사서 역시 목록작성의 원칙과 다양한 접근점, 목록의 기능을 깊이 이해하면 질적으로 더욱 향상되고 확장된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분화된 봉사영역이 상호협력하는 변화의 움직임은 다수 도서관의 OPAC을 네트워크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전자출판으로 2차자료와 1차자료를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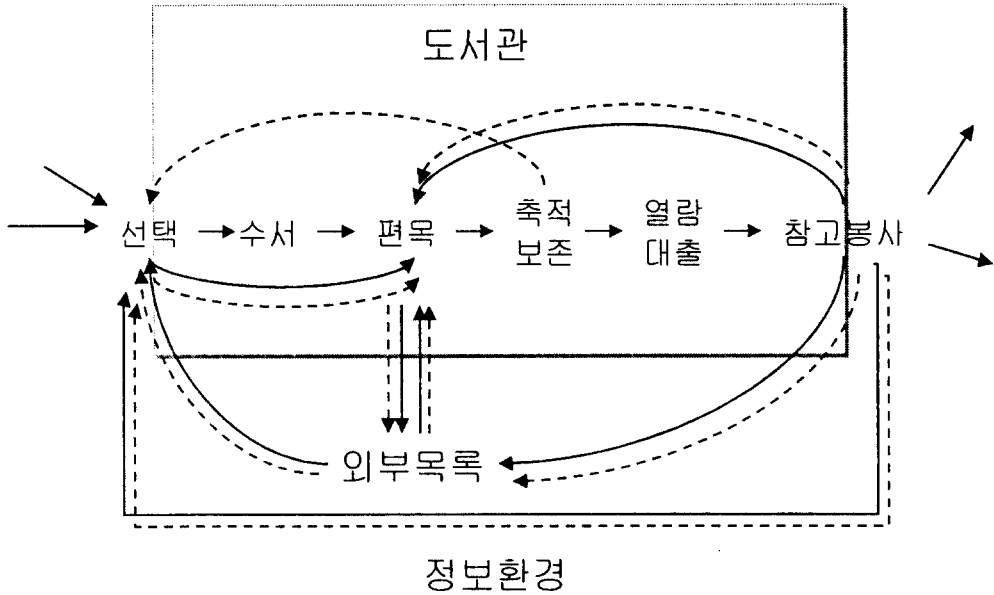
정리사서와 열람, 참고사서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양쪽 업무의 기술과 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분담업무, 부서간의 통합, 조직의 개편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1986-87년 사이에 미국의 40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목록사서의 분담업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9개 도서관(72.5%)이 참고봉사 장서관발 서지이용 교육 등을 분담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 분담의 비율이 더 크고, 1983-84년 조사의 결과에 비해 더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Eskoz, 1991 : 81).

분담업무는 직무에 관한 관심과 기술/열람부서간의 이해를 고조시킨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시간의 분산, 목록의 일관성 결여, 직원의 훈련 및 복수영역에 전문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곤란한 점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동반하고 있다.

목록은 간접봉사의 모든 노력이 응집된 결정체이며 직접봉사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직접/간접봉사의 협력과 효과는 주로 목록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업무변화의 양상이 선택기능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선택업무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독립된 부서 형태로 존재하기 보다 여러 부서에 또는 사서와 이용자 사이에 책임이 널리 분산되어 있다. 여기에서 선택을 사서의 고유업무로 제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선택업무는 도서관 내부적으로는 수서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도서관 업무의 시발점이며 서비스의 결과가 이용자들의 요구와 참고봉사를 통하여 다시 선택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업무의 시작과 마지막을 연결하는 순환의 고리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성격상 직접봉사와 간접봉사의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도서관 외부에서 일어나는 출판,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동향과 변화를 직접 반영해야함으로 도서관업무와 정보환경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선택업무는 이러한 업무 입지상의 특성 때문에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봉사와 간접봉사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두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1〉 도서관 업무의 흐름

※ 실선은 기존의 업무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점선은 새로운 업무흐름 또는 기존에 있었다하더라도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기능을 의미한다.

전통적 환경에서 선택업무의 결과는 장서로 나타난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에서는 선택이 반드시 실물자료의 수집으로 귀결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는 장서가 아니라 그 대응물인 목록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한다. 선택의 본질적인 기능이 외부 출판물세계로부터 경계를 정하여 자관의 이용자에게 내용가치가 높은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면 목록은 이러한 선택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 선택기능의 변화와 융합

도서관업무를 이용자와의 접촉을 기준으로 직접봉사와 간접봉사로 나누는 방법과는 달리 업무의 속성과 흐름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크게 중개기능과 전달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전달기능은 공간을 가로질러 이용자에게 정보자료를 운송하는 기능을 말하며, 중개기능은 정보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개별적인 이용목적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Atkinson, 1994 : 95).

1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4호)

단계	중개기능	전달기능
1	선택	수서
2	편목	축적/보존
3	참고봉사	대출/상호대차

각 단계에서 중개기능의 목적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전달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제 1단계의 선택의 목적은 효과적인 수서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 환경에서 도서관서비스의 제 1단계의 목적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하여 소유함으로써만 이용자에게 확실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었다. 수집이라는 전달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자료를 식별하는 중개기능으로서 선택이 필요하다. 선택의 핵심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가치의 수준에 따라 자료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자료의 내용가치를 평가하고 순위화하는 작업은 제 IV장에서 고찰하였듯이 대단히 불확실하면서도 복잡하고 노동집약적이지만 적합/부적합이 결정되는 순간 순위화 작업의 결과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다른 도서관에서 또는 동일 도서관에서도 다른 시점 다른 목적에 의해 동일 자료에 대한 순위화 작업이 또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택은 도서관업무 중에서 가장 비경제적인 업무라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어떤 정보에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면 선택기능의 목적은 달라져야 한다.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면 장서의 개발이란 불필요하며 비소장자료와의 경계를 의미하는 장서의 개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달기능의 향상이 내용가치를 포함한 총체적인 접근가치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든 자료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가치가 향상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부가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서비스에 의해 어떤 것에 가치가 부가된다는 것은 가치가 부가되지 않는 것과의 차별성에 의해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자료에 대한 물리적 접근가치의 향상은 상대적으로 내용가치의 선별성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며 선택기능의 중요성은 전통적인 환경에서보다 오히려 더 요구될 것이다.

한편 전자정보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자료의 이용을 결정하기 전에 수집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즉 선택과 수집과 이용의 결정은 이용자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선택과 수집은 전통적 환경에서와 같이 사서에 의해서 대리행위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용자 자신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에 대한 평가정보이다.

전통적인 도서관업무에서 오랫동안 연구 개발되어온 객관적인 자료선택 기준과 평가방법은

특정도서관의 자료수집에 적합/부적합의 선택결정이 사라지는 온라인 환경에서 중요한 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료에 대한 순위화의 노력이 선택결정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는 전통적인 경우와는 달리 그 결과를 그대로 유용한 것으로 지속시킴으로써 도서관마다 독립적으로 반복해온 동일자료에 대한 선택과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정보환경에서 중개기능으로서의 선택은 '정보원 평가'의 의의를 갖게 될 것이며 (Atkinson, 1994 : 102), 이용자 자신이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지레코드나 목록 또는 다른 형태의 자료 대용물에 식별기호를 부여하고 평가정보를 조직하는 일로 업무의 내용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선택과 편목은 부분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선택기능과 참고봉사기능도 부분적으로 중복될 것이다. 선택이 외부의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원을 탐색하는 것을 지원하는 참고봉사기능과 상당부분 유사해질 것이다. 인터넷정보를 예를 들면, 가장 효과적인 조직은 그 자료를 찾아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보의 조직은 이용자의 요구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하므로 선택과 정보의 조직, 이용자봉사의 구분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Flowers, 1995 : 468). 결론적으로 이용자에게 논리적인 접근의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선택, 편목, 참고봉사와 같은 모든 중개기능의 상당부분은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능상 통합되거나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할 것이며 직접봉사와 간접봉사의 구분은 점점 더 사라지고 융합되어 갈 것이다.

### 3. 새로운 선택기능의 정립

#### 1) 평가정보의 입력

모든 중개기능이 점차 융합되면 그 결과는 목록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료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객관적인 평가정보나 사서가 평가한 정보를 도서관의 전 직원과 이용자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제안은 목록에 대한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목록이 기계가독형으로 바뀌면서 특정문헌에 관한 검색기능은 ISBN과 같은 표준번호나 LC 제어번호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등을 접근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통적인 목록의 기술요소를 벗어나 목차, 초록, 저자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서지데이터베이스, 백과사전의 전문을 상호연결하여 하이퍼목록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완벽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김태

수, 1995 : 28, 30, Fiste and Thornton, 1993 : 35).

하이퍼목록을 통하여 이용자는 특정주제에 관한 정보를 백과사전을 통해 확인하고 서지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분야의 출판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목차, 초록, 저자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보요구에 더욱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물리적 접근을 위해서 자관의 소장여부를 목록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온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타 도서관의 OPAC이나 오프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나아가 원문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접근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

목록의 기능은 특정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소장자료라는 제한된 서지적 우주에 대한 색인 기능을 벗어나 그것을 작성한 기관이나 자료의 물리적 위치와는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출판된 모든 자료라는 더 넓은 서지적 우주에 대한 색인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정보탐색의 범위가 넓어지면 자료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더욱 중요해진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이용자의 부족한 시간을 내용가치가 높은 자료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의 경제학이 필요하다(Atkinson, 1996 : 246). 평가정보는 관심의 경제학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 가 될 것이다.

평가정보는 목차, 초록, 저자에 관한 정보와 같이 단순하게 발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도 있고 내용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sup>2)</sup>, 이용자의 요구 지식수준과 관련한 상대적인 평가정보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정보는 활용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목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지만 평가정보를 찾아내고 내용을 선별하는 업무는 선택업무에 속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의 탐색과 정보이용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참고봉사의 기능도 겹치게 된다.

각 도서관에서 입력한 평가정보는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정보의 이용자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도서관업무와 관련된 이용자로 자관의 사서와 OPAC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타 도서관의 직원이다. 두 번째로는 자관의 도서관 이용자들이다. 세 번째 이용자는 OPAC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이용자들이다. 다양한 부류의 이용자들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관의 정보요구에 직접 관련된 평가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표준기술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 정보는 참고봉사기능을 통해 특정이용자에게 적합하도록 해석될 것이다.

각종 정보원으로부터 평가정보를 탐색하고, 작성하고, 입력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

2) 영국의 MCB University의 전자도서관 Emerald Library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자잡지의 각 논문에 대하여 연구적 중요성(research implication), 실무적 중요성(practice implication),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 그리고 독서용이성(readability)의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 개수로 차등화하고 있다(URL <http://www.emerald-library.com>).

운 유형의 선택사서는 목록사서, 서지이용 교육사서, 주제전문사서, 서지작성자, 장서관리자의 다중역할을 겸비한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통합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제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 2) 새로운 유형의 선택기능

온라인 환경에서 자료선택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점은 전자정보는 형태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매우 변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가변성은 선택업무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을 요청하고 있다. 하나는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형태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수집된 자료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료의 형태를 변환시키기 위한 선택이다.

가변성은 전자정보의 가장 큰 특성으로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텍스트에 대한 수정, 삭제, 통합 등 조작이 쉽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보의 오리지널리티, 질적인 통제, 정보에 대한 접근과 보존 등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서관은 가상공간에 공개되는 무수한 전자정보 중에서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고 선택하여 자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가변의 정보를 안정된 상태에서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이형태로 출판된 자료 중에서 유용한 정보 또는 인터넷과 같이 통제되지 않은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정보를 질적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도서관이나 이용자들이 공공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전자에서 설명한 자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업무는 전통적인 장서관리의 기능으로 다운로드라고 한다면, 후자의 기능은 출판의 기능으로 업로딩이라 할 수 있다(Atkinson, 1990 : 357), 다운로드와 마찬가지로 업로딩의 본질 역시 정보의 가치와 이용자의 요구를 중개하는 선택기능인 것이다.

또 하나의 새로운 선택기능은 이미 수집된 자료에 대한 재선택 기능이다(<그림-1>참조). 자료선택의 기본적인 기능은 일차적으로 접근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료의 형태를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때 각각은 다른 종류의 접근가치를 갖는다. 인쇄자료는 내용보존의 완전성과 장기적 보존의 가치를, 전자정보는 내용의 분석성과 이동의 용이성이라는 가치를 갖는다(Atkinson, 1998 : 17). 따라서 이미 수집된 정보자료라 할지라도 자료의 가치와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서 동일자료이지만 다른 접근가치가 요구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자료의 형태가 변환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인쇄자료와 전자자료 모두 이용요구의 빈도에 따라 도서관 내부에 소장될 수도 있고 원격자료를 공유 또는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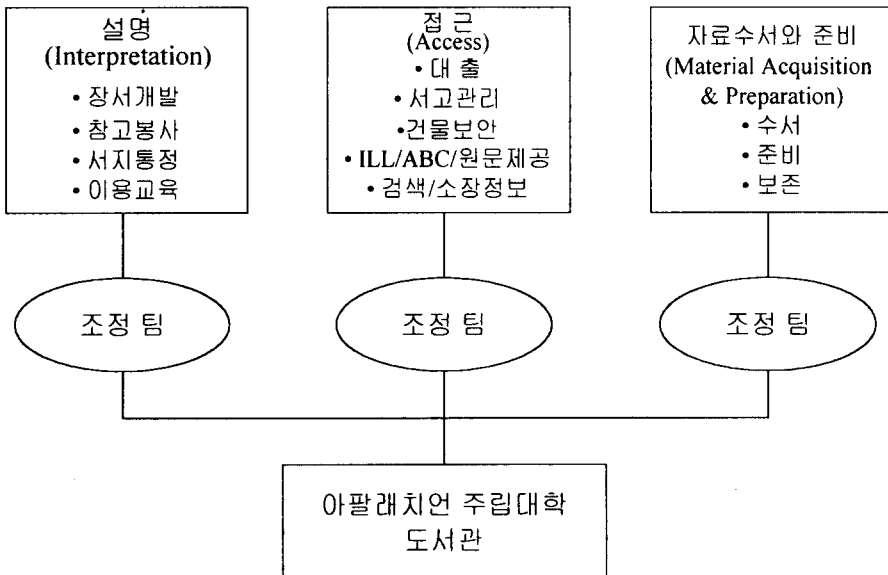
장서관리를 경제적 자원을 정보자원으로, 또는 정보자원 자체나 그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경제적 자원을 절약하거나 향상시키는 쌍방향적인 활동으로 이해한다면,

형태나 접근모드를 변환시키고 제거할 자료를 선택하는 기능 역시 장서관리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 3) 조직의 변화

선택이 중개서비스의 핵심기능으로 인식되고, 편목과 참고봉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인정 되면 업무의 속성과 흐름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중개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직모 델이 필요하다. 정보서비스의 본질은 이용자와 정보를 이어주는 중개기능에 있지만 전통적인 도서관의 업무구분은 서비스의 향상보다는 업무자체의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므로 조 직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중개기능의 통합의 필요성을 반영한 새로운 조직의 모델을 아팔래치언 주립대학 도서관에 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2>.



<그림- 2> 아팔래치언 주립대학 도서관 조직도

\*출처 : Cook and Farthing, 1995 : 457

위의 조직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직접봉사와 간접봉사의 구분을 탈피하여 새로운 업무군으로 개편했다는 점과 계층구조를 수평화된 팀 기반의 모델로 바꾸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평구조는 계층구조보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더 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사서는 설명(Interpretation)영역에 속해 있는데 사서들이 장서개발과 이용자에 대한 직접서비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전문사서는 장서개발에 관련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와 일치하는 주제분야의 참고봉사, 서지이용교육, 서지통정(편목)을 담당하고 있다(Cook and Farthing, 1995 : 456).

설명영역에 중개기능들을 통합한 것은 주제분야를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을 업무의 흐름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영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런 조직은 Eskoz가 지적했듯이 업무의 전문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보가 점점 증가하고 일상업무가 전산화되고 아웃소싱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중개기능에 대한 이용자의 요청과 필요성이 증대되는 환경에서 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 VI. 결 론

도서관에서 수행되는 선택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최종이용자의 요구를 예측하여 이용자를 대신하여 사서가 수행하는 간접적인 선택행위이고, 또 하나는 이용자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는 직접적인 선택행위이다.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이 두 가지 행위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전혀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전자는 도서관업무로서 자료선택의 영역이고 후자는 이용자의 개별적 행위로 정보의 탐색, 또는 검색의 영역에 속한다. 완전히 독립된 이 두 영역은 장서와 목록이라는 매개체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자정보환경에서는 첫째로 사서의 선택기능이 자관의 자료수집으로 반드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둘째로 이용자의 정보탐색기능 역시 자관의 소장자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두 영역의 노력이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찰, 업무흐름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전통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직접봉사와 간접봉사의 벽이 목록의 자동화, OPAC, 그리고 도서관 네트워크의 이용 등을 계기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두 영역간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정보의 이용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자정보

환경에서 선택은 수집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수집을 전제하지 않는 선택기능은 도서관에 수집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편목업무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편목업무란 소장자료에 대한 목록작성뿐 아니라 자료의 소재에 관계없이 최종이용자 자신의 자료탐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를 입력하고 조직하는 업무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선택기능과 편목기능은 부분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탐색을 지원하는 참고봉사의 기능과도 융합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전자정보환경에서 수행되는 장서관리는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장서관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자관에 소장되어 있는 패키지형, 온라인형의 전자자료, 그리고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는 타 도서관의 인쇄매체자료에 대해서도 자관의 자료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선택적인 정보이용을 도울 수 있는 관리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온라인목록 또는 하이퍼목록은 이용자의 요구와 정보자료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폭넓은 평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색인이 아니라 학술정보 전체에 대한 안내 역할로 그 기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도서관환경에서 합리적인 자료선택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본 바, 선택은 자료와 이용자, 도서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변수, 그리고 선택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다수의 요인이 상호간에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교감하며 이루어지는 행위로, 어떤 선택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선택모형의 설계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다이나믹하면서 노동집약적인 선택업무는 현재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일과성으로 소멸되고 있다. 만일 그 결과가 평가정보라는 형태로 자료의 소재에 관계없이 모든 도서관 네트워크의 이용자에게 의해 공유될 수 있다면, 현재 목록정보의 공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질적인 도서관서비스의 향상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태수. 1995. 표목의 기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2(2) : 9-35.  
 노옥순. 1995. 정리사서의 역할변화와 업무재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2(2) : 63-83.  
 맥루한, 마샬. 1988. 미디어는 맛사지다. 김진홍 역. 열화당.  
 \_\_\_\_\_. 1997. 미디어의 이해. 박정규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종구. 1995. 의사결정과정과 우위구조 탐색모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3.  
 Atkinson, Ross. 1998. Managing Traditional Materials in an Online Environment : Some



-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for a Future Collection Management.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42(1) : 7-20.
- \_\_\_\_\_. 1996. "Library Functions,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Foundation for the Digital Library : Lying Claim to the Control Zone," *The Library Quarterly*, 66(3). 239-265.
- \_\_\_\_\_. 1994. Access, Ownership, and the Future of Collection Management. In *Collec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 Issues in an Electronic Era*. ed by P. Johnson and B. MacEwan. ALA. 92-109.
- \_\_\_\_\_. 1991. The Condition of Collection Development. In *Collection Management : A New Treatise*, ed by C. B. Osburn and R. Atkinson. JAI Press Inc. 29-48.
- \_\_\_\_\_. 1990. Text Mutability and Collection Administration. *Library Acquisitions : Practice & Theory*, 14 : 355-358.
- \_\_\_\_\_. 1989. Old Forms, New Forms : The Challenge of Collection Developmen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0 : 507-531.
- \_\_\_\_\_. 1984. The Citation as Intertext : Toward a Theory of the Selection Proces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28: 109-119.
- Buckland, Michael. 1992. *Redesigning Library Services : a manifesto*. Chicago : ALA.
- Cook, E. I. and Farthing, P. 1995. A Technical Services Perspective of Implementing an Organizational Review while Simultaneously Installing an Integrated Library System. *Library Acquisitions : Practice & Theory*, 19(4) : 445-461.
- Depew, J. N. 1975. An Acquisitions Decision Model for Academic Libraries. *JASIS*, 26(4) : 237-246.
- Edelman, Hendrik. 1979. Selection Methodology in Academic Librari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23: 34-37.
- Eskoz, P. A. 1991. Catalog Librarians and Public Services- A Changing Role?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35(1) : 76-86.
- Evans, G. E. 1995.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Englewood : Libraires Unlimited.
- Fiste, D. A. and Thornton, C. P. 1993. Bibliographic Services of the Future.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10(3) : 27-43.
- Flowers, K. A., Keck, K. A., and Linquist, J. L. 1995. Collection Development and Acquisitions in a Changing University Environment. *Library Acquisitions : Practice*

*& Theory*, 19(4) : 463-469.

Gardner, R. K. 1981. *Library Collections : Their Origin, Selec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 McGraw-Hill.

Hains, H. E. 1950. *Living with Books : the Art of Book Selection*.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Hazen, Dan C. 1991. Selection : Function, Models, Theory. In *Collection Management : A New Treatise*, ed by C. B. Osburn and R. Atkinson. JAI Press Inc. 273-311.

Katz, W. A. 1980. *Collection Development : The Selection of Materials for Libraries*. New York : Holt.

Losee, R. M. 1987. A Decision Theoretic Model of Materials Selection for Acquisitions. *The Library Quarterly*, 57 : 269-83.

McColvin, L. R. 1925. *The Theory of Book Selection for Public Libraries*. London : Grafton.

Miksa, Francis L. and Dorty, Philip. 1994. Intellectual Realities and the Digital Library,"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Conference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Digital Libraries*. June 19-21, 1994. College Station, Texas. <<http://www.csd.tamu.edu/DL94>>

Monroe, W. S. 1997. The Role of Selection in Collection Development : Past, Present, and Future. In *Collection Management for the 21st Century*. ed. by G. E. Gorman and Ruth H. Miller. Westport : Greenwood. 105-120.

Rutledge, J. and Swindler, L. 1987. The Selection Decision : Defining Criteria and Establishing Priorit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8 : 123-31.

Schwartz, C. A. 1989. Book Sel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and Bounded Rationality. *College & Research Librarians*, 50 : 328-43.

Taylor, Robert S. 1986. *Value Added Processes in Information Systems*. NJ, Norwood : Ablex Publishing Co.